“보살행으로 병오년 새해 열길”

전국 주요 사찰들 새해 타종식 개최

유재상 충청지사장 · 김선행 대구경북지사장


덕숭총림 수덕사는 1월 1일 타종식을 열고 병오년 새해를 맞이했다. 사진은 방장 우송 대종사의 타종 모습.


조계종 제9교구본사 동화사는 1월 1일 ‘제야의 종 타종식’을 봉행하고 희망찬 병술년 새해를 맞이했다.


세종 광제사는 1월 1일 화합과 평화를 발원하는 종이비행기를 날리며 병오년 새해를 맞았다.

전국 주요 사찰들이 병오년 새해를 맞아 타종 행사를 열고 참된 불자가 될 것을 서원했다.

덕숭총림 수덕사(주지 도신 스님)는 1월 1일 경내 범종각 일원에서 새해 타종식을 열고 희망찬 병오년 새해를 맞이했다.

타종식에는 덕숭총림 방장 달하 우송 대종사와 선덕 지운 스님,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 호계원장 정묵 스님, 주지 도신 스님 등을 비롯해 김태흠 충남도지사, 김지철 충남교육감, 최재구 예산군수, 장순관 예산군의회 의장 등 지역 인사들이 참석했다.

우송 스님은 신년법어에서 “새 하늘과 새 태양이 떠오른 오늘은 각자가 삶의 주인공으로 다시 서는 날”이라며 “대자대비의 마음으로 서로를 돕고 안아 주는 보살행이 병오년을 여는 길”이라고 설했다.

주지 도신 스님은 “오늘의 타종이 시련을 뒤로하고 희망과 평안을 향해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계종 제6교구본사 마곡사(주지 원경 스님)는 1월 1일 자정, 제야의 종 타종으로 희망찬 병오년 새해를 맞았다. 12월 31일 오후 7시 〈금강경〉 독송으로 시작된 제야 행사는 주지 원경 스님과 최원철 공주시장을 비롯한 사부대중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정 타종식까지 이어졌다.

주지 원경 스님은 병오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말[馬]은 환경에 민감하고 주인에게 충실한 동물이지만, 사람의 말[言]은 희망이 되기도 하고 상처가 되기도 한다”며 “경청과 침묵을 아는 태도가 새해를 살아가는 중요한 덕목이며, ‘말의 홍수’ 시대일수록 신뢰와 책임이 담긴 말이 공동체를 지탱하는 힘이 된다”고 강조했다.

태정 스님(아산 인취사 주지)의 명고로 시작된 타종식은 주지 원경 스님과 최원철 공주시장의 타종을 시작으로 동참 대중이 함께 종을 울리며 사회의 평안을 기원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조계종 제9교구본사 동화사(주지 선광 스님)는 1월 1일 ‘제야의 종 타종식’을 봉행하고 지역민과 함께 희망찬 병오년 새해를 맞이했다. 이날 타종식은 불자와 시민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다채로운 문화 공연과 수행 정신이 결합된 ‘복합 문화 법석’으로 꾸며졌다.

행사는 12월 31일 오후 9시 대웅전과 설법전에서 철야정진 기도로 시작됐다. 이어진 문화공연에 앞서 주지 선광 스님은 매서운 추위에도 타종행사를 찾아 준 신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2026년에도 새로운 희망,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모아 가자. 함께하면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타종식에서는 스님과 신도들이 함께 33번의 범종을 울렸다. 대중은 컵촛불로 ‘소원 이루어지다’ 문구를 형상화하며 저마다 마음속 등불을 밝혔다.

조계종 제10교구본사 은해사(주지 덕조 스님)가 을사년 마지막 밤을 지혜의 빛으로 밝히고 서원의 종소리로 병오년 ‘붉은 말의 해’를 맞이했다.

은해사는 1월 1일 경내에서 ‘병오년 은해사 희망의 타종행사’를 봉행했다. 세밑 한파도 이날 행사에는 사부대중 300여 명이 동참했다.

주지 덕조 스님은 “모든 원망과 불편한 것들은 이곳 은해사 도량에 다 버리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세종 광제사와 **세종전통문화체험관**은 1월 1일 해돋이 시간에 맞춰 광제사 대웅전과 앞마당에서 신년 해맞이 법회를 봉행하고 소원을 적은 종이비행기를 날리며 국태민안과 세계 평화를 발원했다.

타종식에 앞서 경내 삼천불전에서는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고 가족과 이웃이 모두 평화롭기를 기원하는 작은 음악회와 108번뇌 참회기도가 진행됐다. 자정을 알리는 타종은 주지 덕조 스님과 어린 자녀를 동반한 가족들이 첫 타를 치며 시작됐으며 타종 후에는 전 대중이 촛불을 들고 탑돌이를 진행하며 새해 평안을 기원했다.

“사찰서 아이들 뛰놀도록 하는 게 ‘포교’”

지역 불교人 광주 동원사 주지 지장 스님

첫째 주 일요일 ‘꿀데이법회’
가족들 함께하는 법회 열어
배움학교 등 어린이 포교 정진


광주에서 어린이 포교에 정진하고 있는 동원사 주지 지장 스님.

불교 포교 기반이 취약한 지역으로 꼽히는 광주에서 매월 어린이 법회를 꾸준히 이어 가고, 매년 여름이면 대규모 어린이 불교학교를 개최하는 사찰이 있다. 광주 동구에 위치한 동원사는 매월 첫째 주 일요일 ‘꿀데이법회’를 통해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하는 법회를 봉행하고 있다. 또 여름방학 기간에는 70여 명의 아이들이 참여하는 여름불교학교를 운영해 지역 포교 현장에서 보기 드문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지장 스님은 과거 불교 어린이 단체인 (사)동련 광주지부장을 맡아 어린이 포교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현장에서 몸소 체득했다. 당시 스님은 어린이 법회와 체험 중심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이 불교를 ‘배워야 할 대상’이 아닌 ‘머물고 싶은 공간’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데 힘써 왔다.

“어린이 포교는 단기간에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분야이기에 더욱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에게 불교를 설명하기보다, 불교가 아이들 삶 가까이에 있다는 경험을 먼저 전해 주고 싶습니다.”

현재 지장 스님은 (사)자비신행회와 함께 청소년 프로젝트 ‘나르샤’를 운영하며 매주 토요일 배움학교를 통해 아이들과 일상을 나누고 있다. 배움학교에서는 학습 지도와 체험 활동, 놀이 프로그램은 물론 점심 공양 나눔을 이어 가며, 아이들이 정서적 안정과 공동체의 따뜻함을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스님은 “아이들과 밥을 함께 먹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포교이자 수행의 자리”라고 강조했다.

나눔을 통한 실천 포교 역시 지장 스님의 포교 행보에서 중요한 축을 이룬다. 2024년에는 동구지역아동센터 어린이 100명을 대상으로 ‘꼬까신 나눔’을 진행했고, 지난해에는 책가방 나눔을 통해 새 학기를 준비하는 아이들을 응원했다.

특히 동원사의 어린이 여름불교학교는 지역 포교 현장에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놀이와 명상, 체험 활동, 불교 문화를 접목한 프로그램에 매년 60여 명의 아이들이 참여해, 불교에 대한 선입견을 넘어 즐겁고 따뜻한 경험을 쌓아 가고 있다.

“아이들이 절에 와서 웃고 뛰노는 모습 자체가 이미 포교입니다. 그 기억이 훗날 힘든 순간에 떠올릴 수 있는 따뜻한 장면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스님은 거창한 목표를 앞세우기보다 지금까지 이어 온 걸음을 조용히 지속하고 싶다고 밝혔다. 꿀데이법회와 여름불교학교, 배움학교와 나눔 프로젝트를 통해 불교가 교리가 아닌 삶의 온기로 전해지길 바란다는 서원이다.

“아이들은 답보다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어른을 더 필요로 합니다. ‘지금의 너도 괜찮다’는 한마디가 아이들 삶을 지켜 주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큰스님이 되기보다는, 누군가의 인생 한 페이지에 따뜻한 장면 하나로 남는 수행자로 살고 싶습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공주 불교계 신년하례 “화합 매진”

1월 6일 공주노인복지관서



공주시사암연합회(회장 천산 스님)와 공주시불자연합회(회장 박영구)는 1월 6일 공주노인복지관에서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사진〉 법회에는 원경 스님(마곡사 주지)과 사암연합회장 천산 스님(갑사 주지), 수석부회장 성관 스님(신원사 주지), 부회장 관우 스님(청룡사 주지) 등이 참석했다.

원경 스님은 “작은 실천의 축적이 지역의 미래를 바꾸는 힘이 된다”고 당부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6교구 동림회, ‘계룡산과 불교’ 첫 특강

1월 4일 공주 신원사서



조계종 제6교구 스님들로 구성된 동림회(회장 성관 스님, 신원사 주지)가 1월 4일 공주 신원사에서 ‘계룡산과 불교’를 주제로 첫 인문학특강을 개최했다.〈사진〉

신원사 주지 성관 스님은 인사말에서 “인문학특강을 통해 수행자 스스로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자 한다”고 밝혔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제3회 백양아이 겨울 명상 캠프 성료

백양사, 1월 3~4일 경내서
40명 참여, 놀며 명상 배워



조계종 제18교구본사 백양사(주지 무공 스님)는 1월 3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경내에서 ‘제3회 백양아이 겨울 명상 캠프’를 열고,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명상 프로그램을 통해 마음을 살피는 시간을 가졌다.〈사진〉

이번 캠프에는 초등학생 40명이 참가해 입재식을 시작으로 △우리 사이 0cm △오! 센스 명상 △타종 체험 △다함께 Fire & Fun △부처님, 안녕하세요 △무지개 썬캐쳐 △마음 나누기 △어린이 수계식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특히 오감을 활용한 ‘어린이를 위한 명상’이 이번 캠프의 핵심으로, 놀이와 체험을 통해 명상을 자연스럽게 접하도록 구성한 점이 눈길을 끌었다. 호흡과 집중, 감정 알아차림 등 명상의 기본 요소를 놀이 속에 녹여 아이들이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표현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지도법사로는 능견 스님(동국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형진 스님(광주연화어린이집 원장), 진선 스님(백양사 포교국장)이 함께했으며, 동국대 WISE캠퍼스 유아교육학과 학생 6명이 교사로 참여해 프로그램 운영을 도왔다.

백양사 주지 무공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학교와 학원 생활로 쌓인 스트레스와 답답함을 백양사에서 내려놓고, 편안한 마음으로 즐거운 추억을 만들고 돌아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혜암당 성관 대종사 열반 24주기 추모다례

해인사, 1월 5일 대적광전서
“청정 계행 되새겨 정법 실천”



해인총림 해인사(주지 혜일 스님)는 조계종 10대 종정과 해인총림 6대 방장을 역임한 혜암당 성관 대종사 입적 24주기를 맞아 1월 5일 대적광전과 부도탑 일원에서 추모다례재를 봉행했다.〈사진〉

다례재에는 해인총림 방장 대원 스님과 주지 혜일 스님, 혜암문도 대표 성법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신도들이 참석했다.

다례재는 부도탑 참배를 시작으로 대적광전에서 거불, 헌향, 헌다순으로 진행됐다. 방장 대원 스님의 헌다 후 종사영반과 추모 입정, 육성법어 봉독이 이어져 대종사의 법음과 수행 정신을 되새기는 시간이 마련됐다.

성법 스님은 인사말에서 “스님께서는 일생을 오로지 수행과 중생 교화에 바치신 분”이라며 “문도들은 스님의 청정한 계행과 무소유의 삶, 그리고 정진 속에서 답을 찾으라는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각자의 자리에서 정법 실천으로 보답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의 추모다례재가 대종사의 가르침을 다시 삶 속에서 되살리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사부대중은 삼배를 올리며 혜암 스님이 남긴 수행과 가르침을 오늘의 삶과 수행 속에서 실천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혜암당 성관 대종사는 1920년 전남 장성에서 태어나 1946년 해인사로 출가한 후 평생을 두타행과 용맹정진으로 일관해 온 선지식이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월정사 대학생전법단, 대만 사찰 성지순례

12월 23~27일 대학생 30명



조계종 제4교구본사 월정사(주지 정념 스님) 소속 대학생전법단이 청년 포교의 새로운 비전을 모색하고 전법 행자로서의 원력을 다지기 위한 대만 불교 성지순례를 성료했다.〈사진〉 월정사 대학생전법단 30여 명은 지난해 12월 23일부터 27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대만을 방문해 불광산사, 중태선사, 법고산사 등을 순례했다.

이동격 강원지사장

금강사 회주 법장 스님, 박사학위 취득



김해 금강사 회주 법장 스님이 미국국제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사진〉

12월 15일 서울대학교 글로벌 38동 공학교육센터에서 열린 학위 수여식에서 여용덕 세인트미션대학교 고등종교대학원장은 법장 스님에게 박사학위를 전달했다. 법장 스님은 ‘헌법과 불교 율법상 인권과 평화에 관한 연구’ 제하의 논문에서 헌법과 불교 율법의 자비와 평화 사상을 학제적으로 고찰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